

#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김 덕 삼\*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고찰
  - 2.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
  - 3.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의미
- III. 결론

## I. 서론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교육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했고, 때론 사회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는 상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을 주거나 받았다.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고대의 교육은 종족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先生) 자신의 경험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인류의 안정된 발전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위해서라도 앞선 세대는 많은 것을 가르치고, 후손은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교육은 시스템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교수.

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상류 특권계층부터 가능하였다.

중국의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교육은 역사와 기원이 오래되었다. 《漢書·儒林傳》을 보면 “마을마다 학교를 두었는데, 夏나라는 校, 殷나라는 庠, 周나라는 序라고 한다.”는 것처럼 고대 중국에도 교육이 체계를 갖추고 존재하였다. 물론 이후 중국 역사에서도 교육은 매 시대마다 중요하고 영향력이 컸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교육과 사회에 영향이 가장 컸던 교육적 사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이를 중국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공자의 교육, 과거제도, 서양교육의 전파로서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구하려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언급한 패러다임에 기초한다.<sup>1)</sup> 교육사에도 당시 교육계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는데, 쿤은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시도 속에서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조금씩 부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대체하지만, 이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생성, 발전, 쇠퇴, 대체의 과정을 거친다. 물론, 시대에 뒤진 이론들이 폐기되어 버렸다는 이유로 해서 원칙적으로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sup>2)</sup>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도 폐기되어 버렸다고 해서 비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과학혁명에서는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에 질적인 단절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패러다임 사이의 우열을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어떤 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교실 안에서의 교육은 현재의 패러다임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sup>3)</sup>

1)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덕삼,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 -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37집, 258쪽.

2) 토마스 S. 쿤 저·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 1996, 21쪽.

3)

과학이 기술을 넘어서는 것은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는 혁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그래도 쿤의 패러다임을 응용하여 적용할 필요는 있다.

교육에서도 교육 방법의 변화, 교육 목표의 변화와 같은 혁명적 변화가 어떤 논리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틀, 場, 관점, 패러다임, 에피스테메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식하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것을 묶어 패러다임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것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이전의 것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해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잘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토머스 길로비치가 명명한 확증편향(Confirmation-Bias)도 이와 같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게임의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구해서 확고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결국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살피는 연구는 데카르트의 '나'라는 것을 넘어, 사회철학적이고 역사철학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sup>4)</sup>

교육의 변화도 다양하게 일어났고, 교육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문에서는 그동안 연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고찰하면서, 교육 패러다임 사이의 성격과 특징을 비롯하여 사회변화와의 상관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교육 패러다임의 특징과 의미를 알아 볼 것이다.

변화에 있어서는 사회변화가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도 있고, 반대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에 일으킨 변화도 있다. 또한 각각의 패러다임

4) 김덕삼,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 —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37집, 258쪽.

에는 각각의 변화 특징도 있겠지만, 변화의 공통점 또한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 속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일반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비판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일반론이기에 예외적인 것을 거론하면서 얼마든지 비판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반론이 완결된 일반론이 아니라 일반론의 완결을 위한 첫 시작이란 생각으로 연구에 임한다.

## II. 본론

### 1.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고찰

과거 역사를 보면, 교육 패러다임은 계속 변화였다. 그 변화가 어떤 원인과 결과 속에 진행되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계속 살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대표적인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사건을 보면 공자의 교육, 과거제도, 서양교육의 전파를 들 수 있다.

물론 그밖에 중요한 교육적 사건도 있다. 예를 들어 稷下學宮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다. 직하학궁은 戰國時期에 설립된 인류 최초의 기숙형 고등교육기관, 종합연구기관, 전국시기의 학술을 종합한 곳, 百家爭鳴을 주도한 곳, 전국시기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학자의 관여로 집단 저작물이 출판된 곳, 齊나라의 싱크탱크(Think tank), 국가주도형 학술연구 기관 등으로 평가된다. 직하학궁은 전국시기의 혼란함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키면서 국가 통치의 대안을 제시하였던 곳이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戰國策》에서는 “이를 일러 조정에 있으면서도 전쟁에 승리한 것이라 말한다. 此所謂戰勝于朝廷”고 지적했는지도 모른다. 현재적 각도로 바뀌

서 본다면 하드 파워(Hard power, 硬性權力)에서 무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Soft power, 軟性權力)에서 국가 교육과 R&D 역량을 통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직하학공의 교육사적 가치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직하학공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제나라의 국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인재를 중시하였고, 셋째, 직하학공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술 분위기를 들 수 있다.<sup>5)</sup>

직하학공처럼 중국 교육에 가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보다 더 사회와 후세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 사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았다. 먼저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공자의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춘추전국시기에 들어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자, 자연스레 교육에서도 官學은 약해지고 私學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학에서 배출된 무리가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공자에 의해 촉발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다.<sup>6)</sup> 공자는 당시 다른 인물, 다른 학파와 달리 배움이란 것을 통해 도를 얻는 것을 추구하였다.<sup>7)</sup> 따라서 공자는 다른 선진 사상가와 제자백가에 비해 교육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은 배움의 방법이고 배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교육이 목적이자 수단이 되었다. 공자의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는 그의 학생들에게 이어졌고, 이는 그의 사학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 굳건해 질 수 있었다.

공자에서 촉발된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私學의 정착이다. 공자는 제한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한된 사

5) 김덕삼, <戰國時期 稷下學宮을 통해 본 韓國 大學改革의 과제>, 《중국연구》 53권, 2012, 97-98쪽.

6) 공자 관련 내용은 앞서 발표한 (김덕삼, 이경자, <고대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공자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56집, 2015)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7) 錢遜, 《先秦儒家》,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5, 45쪽. 錢遜도 이와 유사하게 공자의 교육사상을 설명하면서 배움이라는 것을 도를 이루는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자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람에게만 전수되는 정보를 타파하였다. 소망하는 사람 누구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 이를 통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 놓았다.

둘째, 사학의 정착으로 인한 지식인 계층의 활성화이다. 공자가 교학활동을 하였던 40여 년 동안 배출한 3000여 명의 학생과 72현능을 통해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고착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공자와 그 이후에 이어진 교육과 교육 기관을 통해서였다.

셋째, 앞의 영향에 따른 지식의 증가와 사회의 변화 촉발이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의 공평성을 실현하였다. 교육과 禮를 중시한 공자에 의해, 새로운 지식인 계층인 '士'가 출현하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로부터 지식의 확산이 확대되고 사회와 문화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바로 계층간의 이동, 하류층의 상류층 진입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그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교육을 통해 담보할 수 있었다.

공자의 교육 행위가 교육 내적 외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여기서 지식의 확대와 지식인 계층의 출현이 가속화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심화된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수요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시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어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처럼 공자의 교육 사상에서 촉발된 '점'은 교육 내외적 변화를 통해 '선'으로 확장되고, 이는 다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촉발한 '면'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 속에 중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한 '입체'로 자리 잡았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공자에서 촉발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 내적으로는 배움과 깨달음의 일체화, 교육적 평등 추구, 사학의 시행, 지식의 공유화 등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외적으로는 사회공동체와 조직,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다음으로 과거제도로 인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8) 《史記》 孔子世家: 弟子三千人, 身通六藝者七十二人.

과거제도와 같은 관리 선발제도는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대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관리 선발제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科擧制度가 탄생한 시점을 일반적으로는 隋陽帝의 進士科 창설 연도인 607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여 제대로 이용한 것은 唐代이다.

과거제도는 인재 선발의 방법을 투명화, 객관화시켜 기존의 교육 목표와 틀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선발 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선발된 인재를 활용할 곳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 내적으로는 학문에 대한 확대와 선발 인력을 채용할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교육 외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철학이 정립되어야 했다.

이러한 과거제도 탄생의 교육 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교육의 문제점이 커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과거제도 역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과거제도 탄생의 교육 외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커다란 것으로 정치적 요구를 들 수 있다. 당시 정치적으로 360년간의 혼란기를 정리하고, 중앙 권력의 강화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인재풀을 형성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전문적인 인재 선발 시스템이 요구되었고, 그 시스템을 통해 다민족 통일대제국을 건국하면서 다양한 민족과 계층을 통일하며, 새로운 인물을 만들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과거제도가 교육에 미친 영향은 유가 사상을 핵심적 가치로 만들거나, 학문을 전파하고 확대시킨 것, 학교 교육의 발전을 이끈 것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학문이 시험 위주로 변질되는 것과 같은 단점을 수반하기도 했다.

과거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신분제 사회를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으며, 정치의 안정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였다. 관리 선발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도 희망을 가지면서 사회

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밖에 문학과 사학의 발전을 이끌었고, 심지어 서에도 발전시키면서 민족의 융합과 주변국과의 문화 교류 강화에 이바지 하였다.

끝으로 근대 서양교육의 전파로 인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서양 교육의 전파는 중국 교육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전환점이었다. 전통 교육에 비하여 서양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과거제도하에서의 교육보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물론 국가의 일정 통제와 관리를 받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자유로웠다. 둘째, 과거제도하에서의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학문을 중시하여 교육하였다. 셋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을 시행하여 사회의 변화와 함께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온 교육 내적 영향으로는 서양식 학교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설립과 변화, 이에 따른 교육 방식과 내용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유지되었던 관리 선발시스템인 과거제도의 역할을 교육 체계 속에서 고등교육의 이수로 전환시켰다. 또한 국제교류의 증가로 서구 및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가 확대되고, 사학<sup>10)</sup> 및 교회대학의 발전을 이끌면서 교육 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정리하면 첫째, 교육 체계의 변화와 둘째, 교육 내용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 내적 변화는 전통사회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전통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분제 철폐의 문제, 인권

9) 서양교육의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발표한 (김덕삼, 이경자, <근대 서양 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35권 4호, 2014년)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10) 물론 공립과 사립이 현대 교육에 존재하는 것처럼, 전통 교육에도 이러한 체제는 존재했다. 관학과 사학이 서로 상호 보충하여 발전한 것은 중국고대교육제도의 커다란 특징이다. 관학의 흥폐, 유명무실에 따라 교육사업도 유지 연속되는 것은 사학이었다. 관학은 우수한 인력, 물력이라는 조건에 과거의 영향을 받아 사생, 교학의 질에 있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배양한 사람도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사학은 비교적 자유롭고 활동적이어서 상생관계도 매우 적극적이고 교학내용과 방법도 비교적 활발하고 교학의 질도 비교적 높았다. 중국역사상 저명한 사상가, 과학자, 문학가는 대부분 사학에서 나왔다. 江石滿, 《中國教育》(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14쪽.

의 문제, 남녀평등의 문제, 민주적 정치제도의 문제를 비롯하여 과학정신 등이 사회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 외적 영향은 여러 방면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교육과 사회의 변화는 함께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변화를 단순히 교육에 기인한 변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교육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해도, 일정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교육적 영향을 받아 변화가 고착되거나 발전되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 외적 영향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계층의 출현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동인이 된 점, 정치적으로 전제정치가 무너지고 민주적 정치방식이 도입된 점, 물론 마르크스 이론의 전파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신분제 등이 폐지되면서 자유로운 활동과 상업적 거래가 활성화 된 점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권위와 학습권의 신장 등을 들 수 있다.<sup>11)</sup>

## 2.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

토마스 쿤이 지적한 패러다임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패러다임에 문제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점차 감소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한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존재해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11) 이를 논문(김덕삼, 이경자, <근대 서양 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35권 4호, 2014년)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2) 아래에 열거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에서 구분의 틀은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 — 科擧制度를 중심으로>”(김덕삼, 《中國學論叢》 37집)에서 언급했던 것을 기초로 하였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패러다임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점차 감소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같은 1°C여도 30°C와 99°C에서는 그 영향이 다르다. 임계점에서의 1°C는 그 영향이 크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도 이와 같다. 공자의 경우 주왕실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관학이 힘을 잃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그 진가가 들어났다. 춘추시대에는 각 제후국들이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이들을 양성할 다양한 방법이 요구될 때, 공자의 부귀와 귀천을 막론한 교육은 사회 변동의 힘이 될 수 있었다. 관학이나 기존의 제한된 학생에게만 주어지던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열의 시대 자강을 위한 제후국들의 요구와 맞물려 제자백가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과거제도 역시 기존의 관리 선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제도로써 당시 사회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서민 계층의 만족, 다양한 인재의 등용, 특정 권력층의 권력 집중 방지, 다양한 참여로 인한 반대 세력의 제거, 관직의 전문화, 권력의 중앙 집권화 등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근대 서양 교육의 수용도 전통 교육과 과거제도의 폐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청말의 정치적 사회적 한계와 전통 교육에 대한 경로의존성에 의해, 당시 교육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더하여 서구 세력은 선교와 교역을 토대로 교육을 이용하여 중국 사회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중국 내부에서도 전통의 재창조나 서구 문화의 적극적 수용 등 다양한 변혁의 목소리가 있었다.<sup>13)</sup> 그러나 결국 열강의 침략과 청말의 혼란으로 1905년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과학과 민주를 기치로 내세운 1919년에 일어난 5·4운동 등으로 전통은 서구와 현대의 것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13) 鄭觀應의 경우는 중국에 수용된 서양의 학문이 “외지로 보낸 말이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鄭觀應, 「西學」, 《盛世危言》(1894), 北京: 華夏出版社, 2002, 111-112쪽), 그래서 그는 “中學이 본이고 西學이末이다”고 말했다. 반면 정관응보다 반세기를 앞선 魏源은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하려 하였다.

지금 운영되는 패러다임도 영원할 수 없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화된 것에 맞춰 변해야 하는데, 기득권 세력과 기존의 것에 물든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변화는 내적 혹은 외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앞서 두 경우가 중국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였다면, 근대 서양교육의 수용은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되었다. 이 변화는 매우 빠르고, 전통과 단절되어 이질적이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sup>14)</sup> 이것은 동양의 미래하고 관련된다. 왜냐하면 중국 혹은 동양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초로 출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 교육에 대한 성찰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한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존재해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공자가 私學과 교육을 강조했다지만, 당시의 제자백가들도 공자와 같은 형태를 가졌다. 공자는 다른 제자백가와 달리 漢代의 董仲舒와 漢武帝에 의해 정치 철학으로서의 위치 확립과 다른 학파를 제거하고 유가만을 존재케 한 “罷黜百家, 獨存儒術”에 의해 안정적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물론 이어진 과거제도의 시행에 의해 공자의 교육이 사회 문화적으로 더욱 중시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과거제도의 경우도 수나라 이전에 이러한 선발제도도 있었다. 그러나 隋煬帝가 進士科를 창설한 60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후 唐이 재능을 가진 사람을 관료로 선발하는 과거시험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과거제도가 안착될 수 있었다.<sup>15)</sup> 科擧制度는 隋代에 시작되었지만, 隋代는 科擧制度와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 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여 제대로 이용한 것은 唐代이다.<sup>16)</sup> 이는 마치, 漢代의 발전이 秦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듯이, 唐

14) 이경자, 김덕삼, <동서양 프레임을 통한 근현대 중국 교육에 대한 성찰>, 《중국지식네트워크》 2권, 2016년.

15) 何柄棧, 《中國科擧制度의 社會史的 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88, 281쪽.

대의 발전도 隋代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같다.

근대 서양 교육의 전파에 따른 교육의 변화도, 明末清初를 살았던 顏元의 교육 내용에서도 발견된다.<sup>17)</sup> 물론 이러한 것은 약간의 牽強附會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보면 고대부터 전란기나 왕조가 뒤바뀔 때에는 실용주의적 교육이 대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대에도 청말의 혼란기 이전에 서구의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면서 서구의 과학과 교육의 장점을 수용하려하였다.

새로운 체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되고, 설령 그 뜻과 의도가 좋더라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제도의 부적응에 따른 반발 등으로 일정 정도의 적응기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의 것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해서 볼 때, 보다 충분한 여지를 두고 관찰해야한다.<sup>18)</sup>

공자의 학문이 한대와 수대를 거치며 안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科擧制度도 唐代와 이후 왕조를 거치면서 안착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시대적 사회적 적응에 따른 시간이 필요했다. 즉, 하나의 패러다임이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이것이 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데에는 매우 혁신적이고 참신하게 이용되지만, 자체적 문제와 적용시 안착하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sup>19)</sup>

16) 그렇다고 몇몇 주장들처럼 隋代의 科擧制度 실시에 대하여 의미를 축소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수 왕조는 인재 선발에 있어 고대 사회에 결코 어떤 창조적 의미를 지닌 典章制度를 제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隋代의 군신들에게는 뛰어난 인재를 질투하는 단점이 있었던 듯하다.” 혹은 “隋代의 선거시험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지 못했고, 한두 명의 대신들이 개인의 好惡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아무런 성문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진정 지음,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사이, 2003, 80-81쪽. 참고적으로 한국의 과거제도도 唐代의 것을 수용했다. 고려 4대왕인 광종 9년(958년)에 고려에 귀화한 雙冀의 제안으로 실시되었고, 1894년 甲午改革 때 폐지되었다.

17) 김덕삼, <안연 교육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 탐구>, 《중국학논총》 53권, 2016년.

18) 예를 들어 지식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1750~1900년 사이에는 150년, 1900~1950년 사이에는 50년, 1950~1960년 사이에는 10년이었고, 2020년이 되면 73일을 주기로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의 73일이 1700년대의 73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의 73일이 600년대의 73일이 아닌 것과 같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것을 관찰하는데 주의를 당부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재촉하는 커다란 動因이기도 하다.

19) 김덕삼,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 —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37집, 2012년.

셋째,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해서 운용되기까지, 권력자나 권력기구의 요청과 집행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와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孔子的 교육理想도 漢王朝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실행되었고, 이어진 과거제도의 덕택으로 공자의 사상이 널리 오래 전파될 수 있었다. 科擧制度도 隋代와 唐代를 잇는 중앙 집권의 정치적 정책 속에 실행 가능하였다. 그리고 科擧制度가 비록 중앙 권력의 요청에 의해 시도되었다고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환영을 받았고 이것이 힘이 되어 안착될 수 있었다. 근대교육은 1905년 과거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국의 주된 교육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의 직면, 전통문화와의 단절 등에서 아직 안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과거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진행 중이다.

넷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공자의 교육은 한대의 정치적 선택과 수대의 과거제도에 의해 토대가 완성되었다. 이후 이러한 토대 속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배출한 제자를 통한 지식인 계층의 확산, 저작과 교육제도를 통한 지식의 축적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것은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와 함께 커다란 유교 문화권을 만들었다.

과거제도는 그 영향력이 더 현실적이었다. 과거제도는 元代에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1300여 년 동안 700여 명의 壯元和, 11만 명에 이르는 進士, 수백만 명의 擧人, 秀才 등 셀 수 없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이들은 중국 역사에서 걸출한 정치가, 사상가, 문학자, 교육자 등으로 활동하며 중국 역사를 움직였다. 과거제도는 결과적으로 봉건왕조의 통치 역량을 드높이고, 민간의 反抗 역량을 감소시켰다. 인류사적으로도 인류의 지식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원인 가운데 과거라는 시험제도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sup>20)</sup> 근대 서양 교

20) 지식을 근거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였던 시험제도는 과당 경쟁 속에서 지식의 양을 증가시켰다. 과거제도의 過當競爭은 동양적 가치관에 부합되어 더욱 과열되었다. 동양적 사고에서 보면, 孝의 마침인 立身揚名은 결국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어 훌륭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하니, 어찌 과거시험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있었을까? 공

육 수용의 변화는 오랜 전통을 서양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과거 그 어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보다도 짧은 시간에, 이질적이면서 전면적으로 강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물론 이거니와 비판과 반성도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패러다임은 생성, 발전, 쇠퇴, 대체의 과정을 거친다. 공자의 교육도 춘추전국 시기의 생성 단계를 거쳐, 한대의 독존유술과 수대의 과거제도를 거치며 발전하였고, 근대 서구 문물의 도입과 함께 쇠퇴하여 대체되었다. 과거제도도 기존의 선발제도를 대신하여 새로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 과거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징표이자 동인이 되었고, 마침내 이것은 1905년을 일기로 과거제도에 집중된 힘을 빼고, 과거제도의 핵심인 시험 기능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거제도는 공부를 중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출세의 공부와 수양의 공부를 혼동하게 하는 시작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서양 교육의 전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타 학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학교 교육이 발전하고, 경직된 사고를 대신하는 토론과 창의의 교육이 뿌리내리고, 儒學의 사상으로 굳어졌던 교육에 민주와 과학 등 다양한 학문이 출현하는 변화를 유도했다.

### 3.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의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연 지금 여기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발생하는 교육의 문제도 결국은 과거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부에 집중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였기에 과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김덕삼, <中國教育 패러다임의 변화 -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37집, 2012년)

첫째, 사회적 가치의 변화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그 어느 것보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과거에는 예의, 도덕, 정의, 사랑 같은 추상적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스레 투자대비 이익이 큰 것에 몰리고, 무엇보다 교육적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지불식 중에 사회적 가치도 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금의 교육은 제한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 국민에게 관계된 중요한 문제다. 계급과 계층이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시대의 과거제도와 다르게, 누구나 받는 의무교육 속에 명문대학 유망학과로의 입학은 과거시험보다 규모와 영향이 크다. 그래서 ‘立身揚名’을 위해 온 국민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몰입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100년 동안의 미국 교육을 분석한 데이비드 타이액과 래리 큐반이 쓴 《Tinkering toward utopia》에서는 미국의 땀질 교육 개혁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sup>21)</sup> 저자들은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교육정책은 외면 받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과 비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교육 정책에 대해 “教育五年之小計”라는 비판이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론에서의 지적 등<sup>22)</sup>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의 교육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교육 개혁과 정책적

21) Tyack, David B., Cuban, Larry, 《Tinkering Toward Utopia: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22) “대한민국은 교육 실험공화국인가?”(중앙일보, 2015. 03.30, 29면), “입시제도를 장수상품으로 만들자”(중앙일보, 2015. 04.01, 31면), “입시 ‘모르모트’는 죄악이다”(중앙일보, 2017. 06.12), “신인령, 김상곤에 쓴소리해야 교육이 산다”(중앙일보, 2018. 01.04, 28면). 한국의 대입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박정희 정부 때 69학번은 대입을 6달 앞두고 전 과목 예비고사를 봐야 했고, 전두환 정부 때 81학번은 고3 여름방학에 본고사가 없어서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교육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과거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제한적이다. 다양성보다는 획일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사람이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오늘이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특성을 맘껏 드러내야하지만 아직 사회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제한된 열매를 차지하려고 과도한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열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찾고 제공한다면 과도한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을 텐데 아직 역부족이다. 희소성을 다양성으로 극복하고, 이익이 적당하게 골고루 분산되면서, 한판 승부로 끝나는 현재의 성공 구도를 변화시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적 연결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면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출혈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가고 이어서 좋은 직장을 얻어 평생 남보다 우월하게 사는 구도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곳으로 향하는 것에 다양한 루트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가 언급한 같되 조화롭지 못한 同而不和보다 조화로우면서 서로 다른 和而不同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공부가 자신의 특성에 맞춰 이루어지고, 이에 맞는 특화된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여 다양한 직종에서 각자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이다. 우리는 이 곳 이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의 공통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쳤을 때, 둘 낳고 셋 낳은 사람이 짐승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많이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뀐 상황에서 하나는 외롭고

둘 낳고 셋 낳은 것은 유복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는다.<sup>23)</sup>

둘째, 교육 내용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암기위주의 방법이 중요했고, 목적을 달성하기 수월했지만 이것은 산업혁명이후 대량교육시스템에서 사회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배양하고 이들에게 매뉴얼을 익혀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던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제는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지금의 교육 제도 하에서 능력과 실력이야 어떠한든 대학을 졸업해야하고, 명문 대학이 무조건 좋고, 한번 명문대학에 가면 팔자가 고쳐지고, 대학입시라는 한판 승부로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를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교육을 교육열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남을 놀려야지만 내가 이기는 경쟁을 부추기는 등,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국의 교육과 환경 속에서 한국적 교육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언젠가는 (공간의 변경이 아닌 시간의 변경 속에) 가족계획처럼 변경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물론 똑똑한 우리는 결국 사회 전반의 공통된 성향과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극복해야한다.

셋째,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사회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에 교육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2의 기계시대》에서는 현재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처럼 지적했다. “체스판의 첫 번째 칸에는 쌀 한 알을 놓고, 두 번째 칸에는 두 알을, 세 번째 칸에는 네 알을 놓는 식으로, 다음 칸으로 갈수록 쌀알의 수를 앞 칸보다 두 배씩 늘리는 겁니다.” 이러한 속도에서 체스판의 마지막 칸에서는 그 수가 에베레스트 산도 티끌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수에 대한

23) 패러다임이란 표현은 앞에서 말한 장, 에피스테메, 프레임 등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변화의 감각과 속도에 둔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sup>24)</sup> 바로 지금이 이러한 때라는 것이다. 변화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정도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내 머릿속에 담고 있던 방식과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계속 새롭고, 그 새로운 것이 상호 융합을 일으켜 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지금이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변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교육도 엘빈 토플러가 지적한 것처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하루 15시간 이상을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허비하고 있다”고 한국의 학생을 걱정했다.

교육과 현실적 요구 사이의 괴리감이 교육문제를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과거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제도 폐지 직전의 교육은 단순히 과거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마저 저버린 전통 교육은 당시 새롭게 전파된 서양 교육의 세력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sup>25)</sup>

공자에 의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고, 상호 깊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공자를 핵심으로 하는 유가의 교육 사상은 사학의 부흥과 지식의 확대·재생산을 가져오며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근현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공자와 그의 후학들이 행하였던 가장 새롭고 광범위한 지식을 이용하고, 많은 백성의 생각을 수용하여 옛 학문을 발전시키고, 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정신과 행동을 잃어버리고 안주하였기 때문이다.<sup>26)</sup>

24)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청림출판, 2014년, 64-66쪽. 책에서는 2006년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25) 김덕삼, 이경자, <근대 서양 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35권4호, 2014.

26) 김덕삼, 이경자, <근대 서양 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35권4호, 2014.

과거 교육 패러다임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했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역량이나 권력자나 권력기구의 의지 등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기존의 화폐를 미래화폐라는 비트코인 같은 것이 대체하려고 새롭게 주목받는 것처럼,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주도하던 국가와 권력기구의 형태를 다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마찰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에 다른 성격이 것인지도 모른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가 기대야 할 부분은 어딜까? 바로 교육의 본원이고, 교육의 뿌리일 것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오늘, 교육의 본질에서 그 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거칠게 표현해서 당신의 배낭 속에 있는 물건 가운데 필요 없는 것부터 하나씩 빼낼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것. 자신의 삶에서 빼고 빼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보다 근본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교육에서도 이와 같이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질문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앞서 언급했듯이 선대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행복에 있을 것이다. 물론 행복에 대한 정의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sup>27)</sup> 교육의 방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 얻으려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 따라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하여 갈 것이다.

27) 반드시 물질과 금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마다 달랐다. 지금은 물질에 많은 비중이 놓여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사교육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를 해결할 교육적 방법은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의 지적처럼 공교육회복에 있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수급에서 소득불평등을 찾을 수도 있다. 그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교육에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투자에 형평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교육의 투자는 경제성장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중앙일보, 2014.09.20. "한국 소득 불평등 줄이려면 공교육 투자 늘려야")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경제만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경제보다 仁義禮智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여기서 교육의 목적은 內聖外王같은 修身의 요인이 있었다.

### Ⅲ. 결론

지금까지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특징, 의미를 알아보았다. 공자의 교육, 과거제도, 근대 서양교육의 수용을 비롯하여 직하학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이러한 교육적 사건은 중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과 변화를 일으켰다.

오늘의 변화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어느 시대나 '현재'는 과거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재'가 과거의 '현재'보다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다. 첫째는 야스퍼스가 지적한 차축시대의 변화가 2500여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의 변하지 않는 사고 형태에 커다란 반전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행하는 많은 교육과 사회적 틀이 산업혁명이후의 변화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변화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변화와 차원이 다른 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틀,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고, 이에 대한 대답을 보다 세밀하게 찾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패러다임은 어떤 사회 상황에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급진적이었는가? 그리고 방법은 강압적이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왜 사회와 시대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했는가?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순작용은 무엇인가?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이전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 변화된 패러다임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켰나? 그렇다면 중국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되어야하고, 어떤 것이 될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웃 한국은 어떠했는가? 등이다.

중국 교육의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공자가 널리 전파한 私學으로 사회에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이바지하며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리

고 이것은 아시아에 공자의 영향을 퍼트리고, 학문의 일반화를 확산시켜 인류 발전에 기여하였다.

과거제도의 경우는 선발제도의 혁명이었지만,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사회와 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주변지역에도 오랜 기간 출중한 관리선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과거시험의 일반적인 교과목에 선택된 유가 경전과 유가의 사상은 결국 유교문화의 확산과 공고화에 기여했다.

중국은 서양학문의 도입을 통해 13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과거제도와 이를 통한 교육 시스템과 교육 내용을 뒤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변화는 중국 경제의 도약과 이에 따른 소프트 파워의 강화로 다시 도약하고 있다.<sup>28)</sup> 교육에 있어서는 21세기를 전후하여 985工程, 911計劃, 千人計劃 등을 준비하며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기획했고, 이는 다시 중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에 놓여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중국은 새로운 변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을 만들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타파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살펴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다음의 패러다임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 < 參考文獻 >

《論語》, 《史記》, 《隨書》

고정식,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2004.

28) 김택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육의 변화>, 《교육사상연구》 27권 3호, 2013년.

- 郭齊家, 이경자, 《중국의 고대학교》, 원미사, 2004.
- 교육철학회,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 : 교육철학적 분석과 비판》, 교육철학회, 1999.
- 구자역, 《중국의 교육》, 원미사, 1999.
- 김덕삼, <中國 教育 패러다임의 변화 — 科擧制度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37집, 2012.
- 김덕삼, <戰國時期 稷下學宮을 통해 본 韓國 大學改革의 과제>, 《중국연구》 53권, 2012.
- 김덕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육의 변화>, 《교육사상연구》 27권 3호, 2013년.
- 김덕삼, <안원 교육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 탐구>, 《중국학논총》 53권, 2016.
- 김덕삼, 이경자, <근대 서양 교육 전파가 중국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논총》 35권 4호, 2014.
- 김덕삼, 이경자, <고대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공자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56집, 2015.
- 김정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이경자, 《중국 고등교육사》, 한국학술정보, 2008.
- 이경자, 김덕삼, <동서양 프레임을 통한 근현대 중국 교육에 대한 성찰>, 《중국지식네트워크》 2권, 2016년.
- 에릭 브린올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청림출판, 2014년.
- 조정윤,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 진정 지음,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 토마스 S. 쿤 저 ·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 1996.
- 畢城, 이경자 외 1인 역, 《중국의 전통가정교육》, 경인문화사, 2005.
- 何柄棣, 《中國科擧制度의 社會史의 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1988.
- 한면희,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1.
- 美國鈞, 《中國教育周期論》, 北京大學出版社, 2005.
- 江石滿, 《中國教育》, 安徽教育出版社, 2002.
- 高奇, 《中國高等教育思想史》, 人民教育出版社, 2002.
- 高時良, 《中國教育史綱》, 人民教育出版社, 1993.
- 國家民族事務委員會經濟發展司 ·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中國民族統計年鑑

- 2000》, 民族出版社, 2000.
- 曲士培, 《中國大學教育發展史》, 北京大學出版社, 2006.
- 能明安 主編, 《中國近現代教育改革史》, 重慶出版社, 1999.
- 毛禮銳, 沈灌群 主編, 《中國教育通史》(第二卷), 山東教育出版社, 1986.
- 潘懋元 主編, 《中國高等教育百年》,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5.
- 方曉東·李玉非·畢誠·宋薦戈·王洪元, 《中華人民共和國教育史綱》, 海南出版社, 2002.
- 謝長法, 《中國留學教育史》, 山西教育出版社, 2006.
- 李均, 《中國高等教育研究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5.
- 錢遜, 《先秦儒家》, 遼寧教育出版社, 1995.
- 陳大齊, 《孔子學說》, 正中書局, 1981.
- 蘇雲峰, 《中國新教育的萌芽與成長》, 北京大學出版社, 2007.
- 鄭觀應, 「西學」, 《盛世危言》(1894), 北京: 華夏出版社, 2002.
- 陳學尙 主編, 《中國教育史研究1~4》, 華東師範出版社, 2009.
- Benjamin I. Schwartz, *The World of Thought in the Ancient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Donald J. Munro, *The Concept of Man in Early Chin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David S. Nivision, *The Ways of Confucianism*, ed. by Bryan W. Van Norden, Chicago and La Salle, Illinois: Open Court, 1996.
- Linda Trinkaus Zagzebski, *Virtues of the Mind: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Virtue and the Ethical Foundations of Knowle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Tyack, David B., Cuban, Larry, *Tinkering Toward Utopia: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중앙일보, 2015.03.30; 2015.04.01; 2017.06.12; 2018.01.04

< Abstract >

Changing Paradigm in China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Kim, Dug Sam

In this paper, China's educational system has gone through three big changes in a long time of history. What changed was not just an education. Society and education went through shifts responding to each other.

Educational change from Confucius's idea induced change of education paradigm and this change influenced not only education, but also external direction of education lik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 assumed three historical paradigmatic shifts in educational system in China which had big influences on the foundation of Chinese educa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 Thoughts, the introduction of Civil Examination System in Sui Dynasty, and lastl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educational system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biggest and recent shift among the changes was educational paradigm shift caused by transfer of Western education. It was also one of the many changes China had been forced to confront unvoluntarily. It was done for many other complicated factors such as the greed of western imperialistic countries, spreading of Christianity and missionary education, domestic resistance against long feudal reigning of Qing Dynasty, and lastly the intellect's eagerness for new knowledge and new ways of thinking.

In this paper, I explain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paradigm based on past research. The China's educational paradigm has several features. In the text, examined fiv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paradigm. Educational Paradigm shifts occurred along with the changes in society. The educational paradigm shifts as society's demands and the role of traditional education differ. Chang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educational paradigm also

apply to modern education.

Key words: China, education, Paradigm, Confucius, The past system, Modern, Western Educ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31.	2018. 3. 9	2018. 3. 17.	2018. 3. 20.	2018. 3. 31.

